



나그네

NAGUNE

Augmented Reality Art Communication



TABLE OF CONTENTS

01 기획 배경

02 기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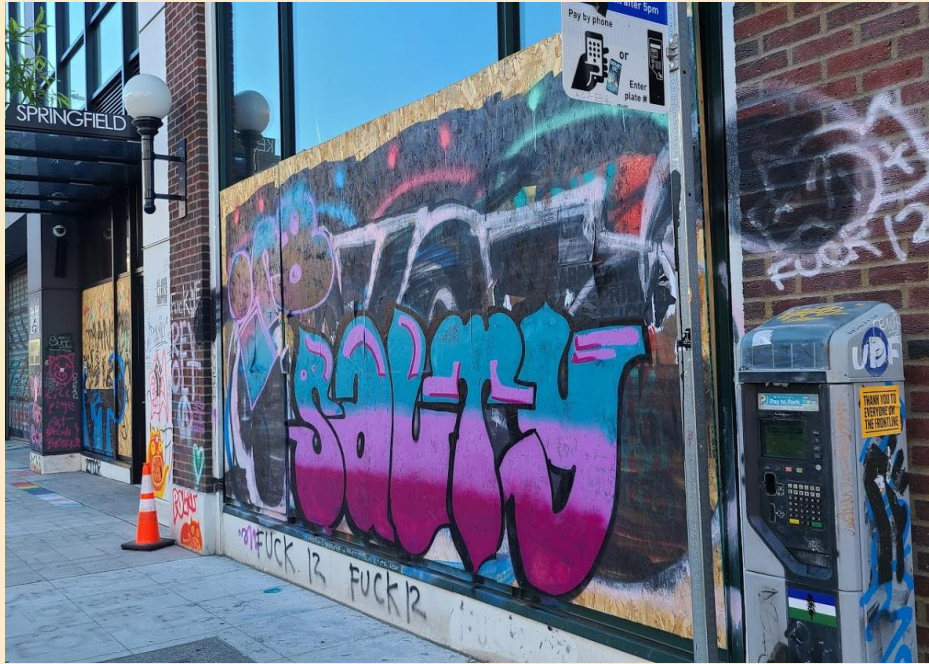
03 기능 소개

04 기술 스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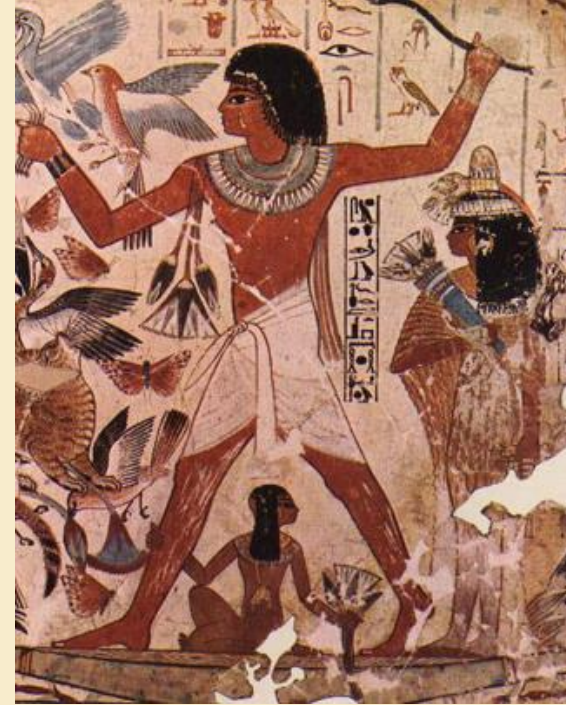


기획 배경





시애틀 거리 그래피티



고대 이집트 벽화





'낙서벽'...몸살 앓는 관광 명소들

권선미 기자

입력 2017.06.03 1

[밀착카메라] 관광·유적지 장소 가리지 않는 '낙서 폭발전'

입력 2017-07-27 22:03

작게

크게

공감

0

中, 유명 관광지마다 낙서로 '몸살 앓는 문화재'

입력 2016-10-09 14:38 | 수정 20

0

가

목록

[겨를] 역사적 기념물에 그린
그라피티, 처벌해야 할까요?

0

undefined

일반 ▾

"제발 낙서 좀 그만해요" 예술이냐 낙서냐, 길거리 그래피티 갈등

f

twitter

link

최종수정 2020.06.19 15:57

'경범죄' 저지르는 예술가들

제329호

2000.10.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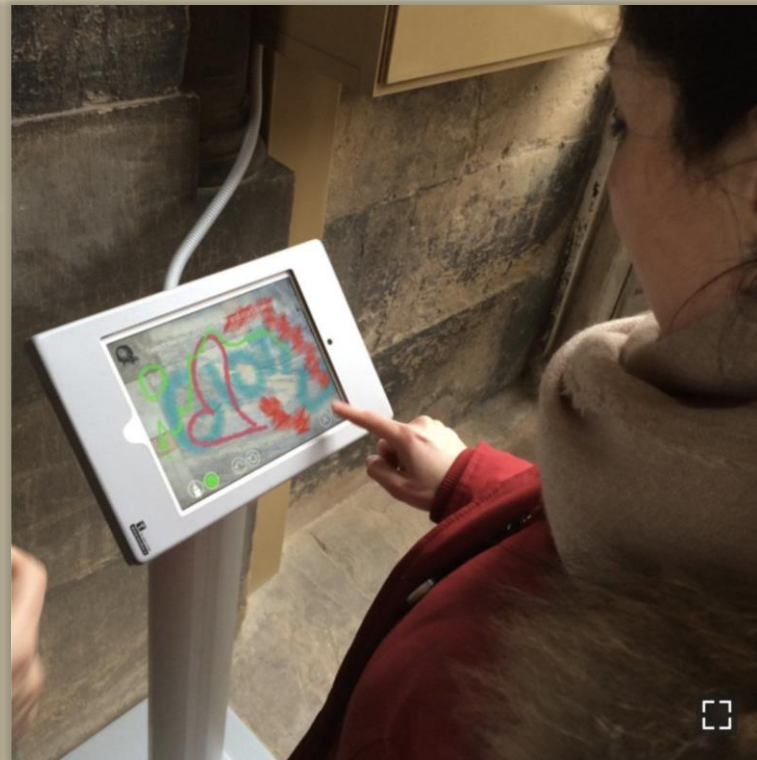
‘낙서와의 전쟁’ 伊피렌체 대성당, ‘디지털 낙서장’ 도입

입력 : 2016.03.17 11:49:35 수정 : 2016.03.17 15:12:31

두오모 당국은 결국 묘책을 냈다. ‘낙서엔 낙서’로 대응하기로 했다. 다른 점이 있다면 ‘버추얼 그래피티’ 즉 가상현실 속에 남기도록 했다는 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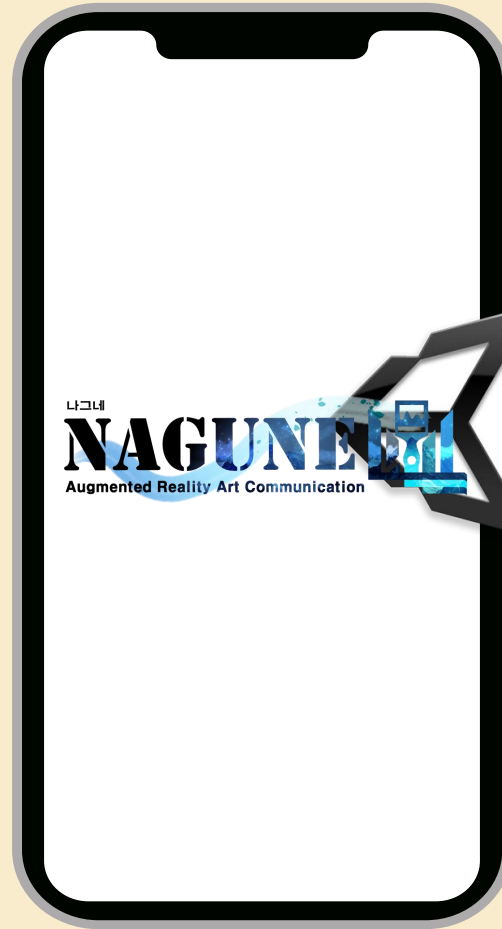
종탑으로 향하는 1·3·4층에 한 대씩 모두 석 대의 태블릿PC를 설치했다. 거기엔 ‘오토그래피(자필서명)’란 앱이 깔려있다. 화면엔 ‘흔적을 남기고 역사의 일부가 되십시오’란 글귀가 담겼다.

사용자들이 펜이나 붓·스프레이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바탕화면에 글이나 이미지를 남기면 그게 영구 저장되도록 했다. 이를 인터넷(<http://autography.operaduomo.firenze.it>)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. 1296년부터 있던 두오모 기록물의 일부로 보관되는 셈이다.









NAGUNE
Augmented Reality Art Communication



unity

주요 기능



MAP

GPS 기반, 유저들이 남긴
흔적을 표시, 감상



A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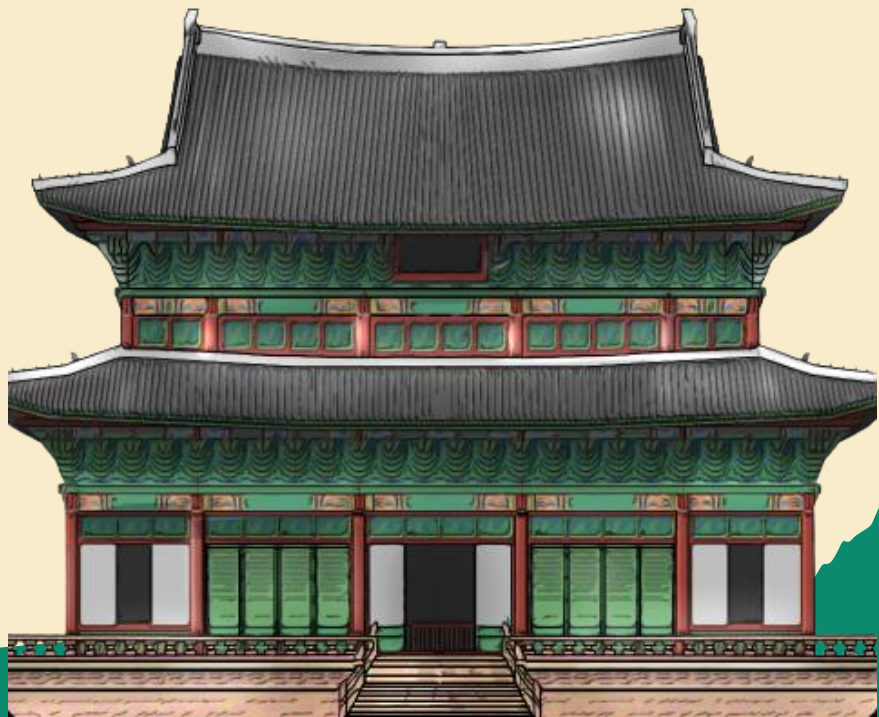
원하는 좌표에 유저가
낙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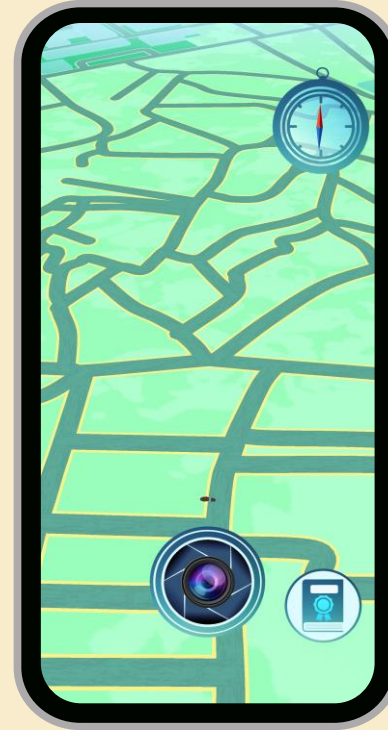
COLLECTIONS

랜드마크에서 심볼 획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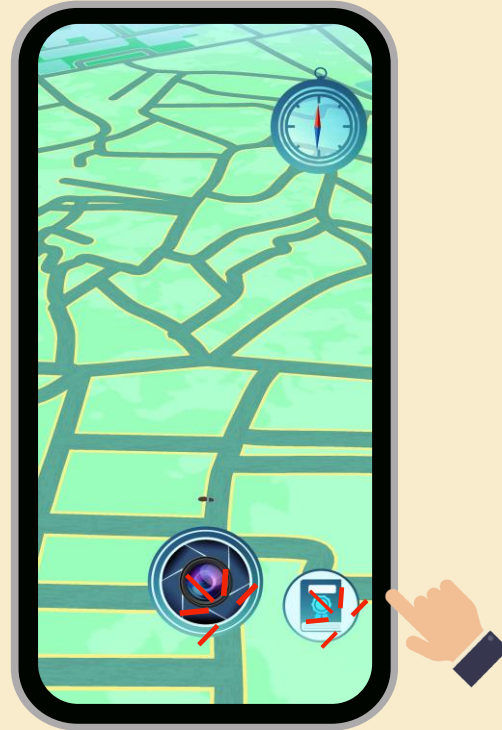
MAP



MAP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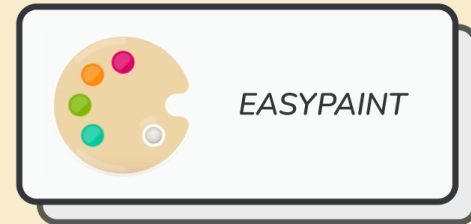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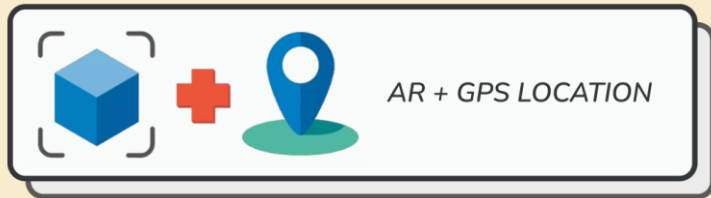
MAP



A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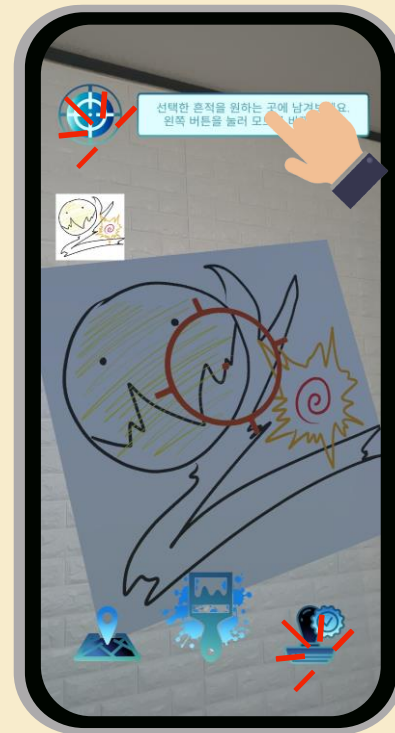
AR



A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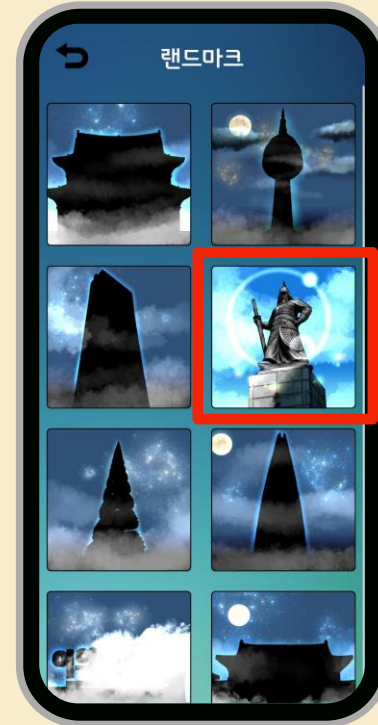
A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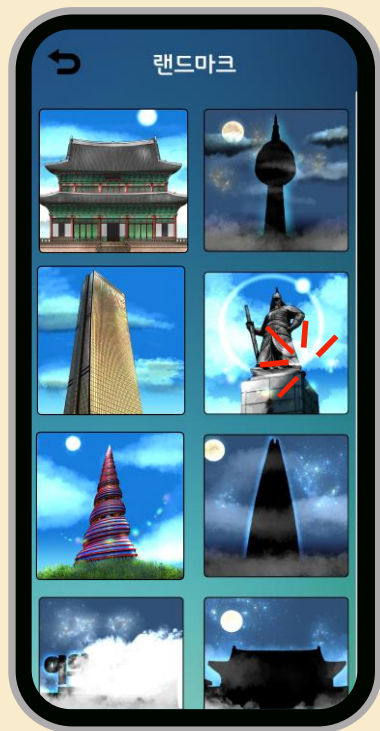
COLLECTION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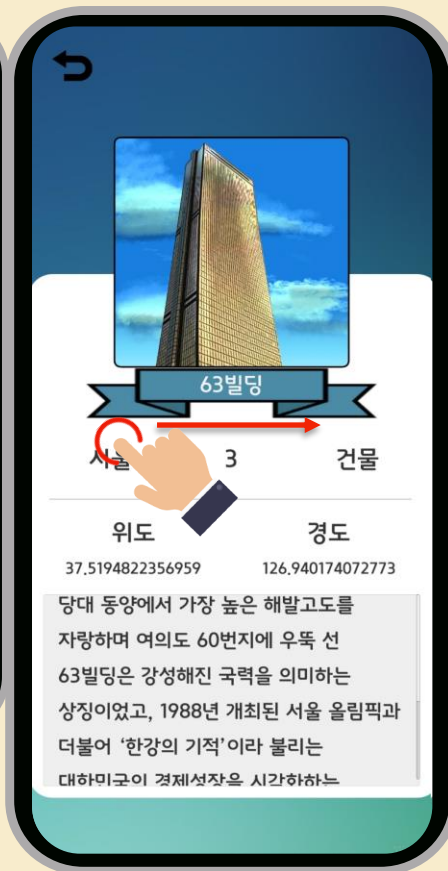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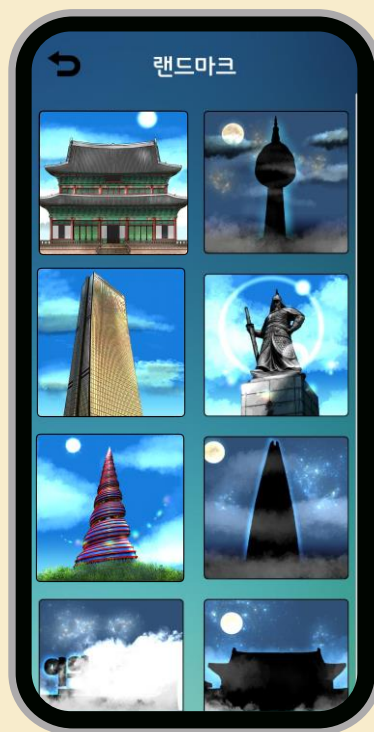
Collections



Collec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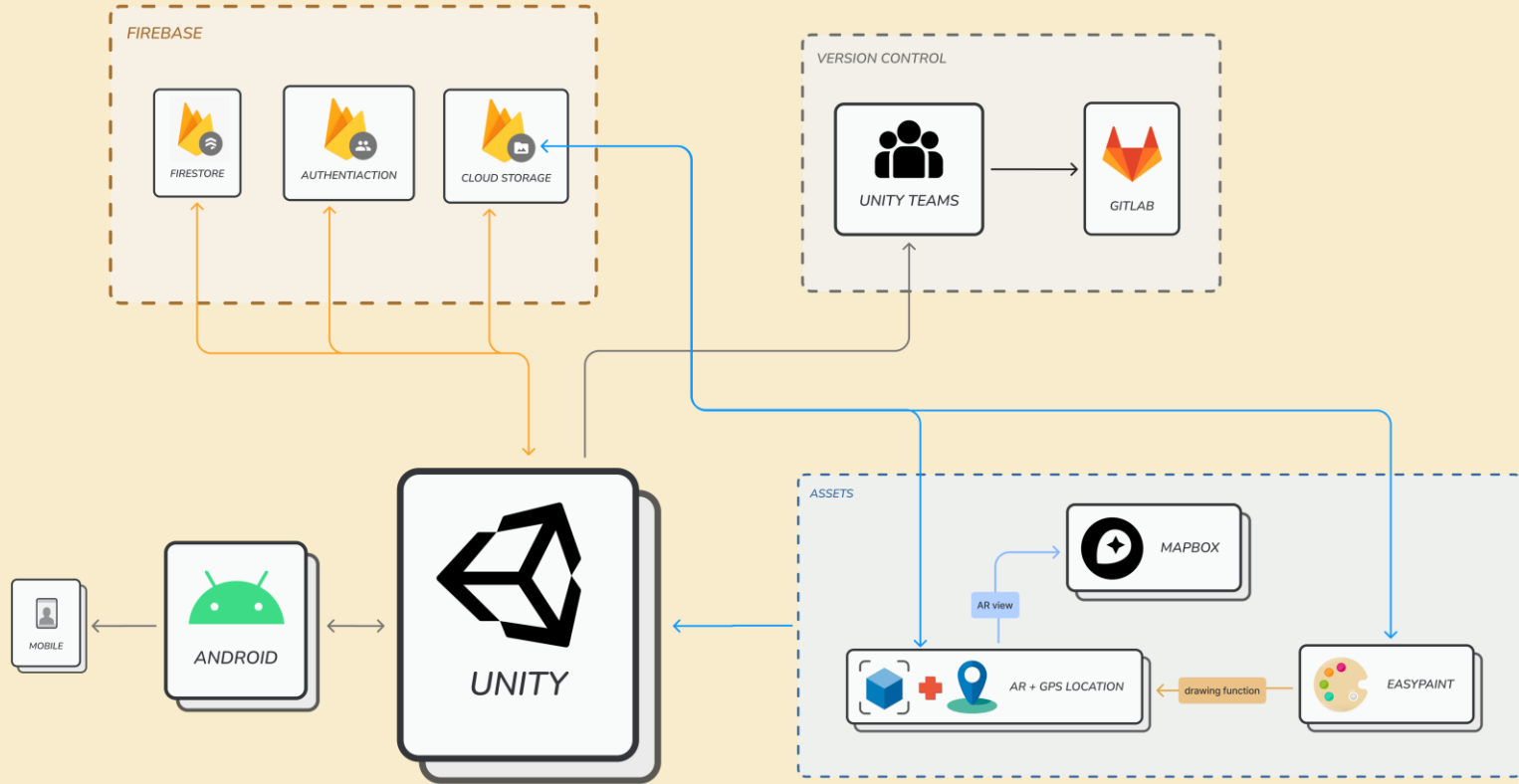


Collections



시연

Architecture



THANKS!

